2021-1 / GEK20011-02 기독교 세계관 기말고사 담당: 최용준 교수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1:30-12:45 이름: **김현욱** 학번:  **21800201**

본 시험은 오픈 북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학기 주교재는 다 읽었나요? 수업에 자신의 준비, 태도, 정직 및 성실성에 대해 자신에게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점)**

점수: 5점

이유: 주교재를 다 읽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논문을 읽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이해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맡았던 인종차별 문제를 성경적 시야로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과정이 제 삶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책 읽고, 줌 수업을 들으면서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2.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을 포함해 설명해 보세요. (15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조와 방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으로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만물의 질서를 정립하면서 인간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조의 법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건드렸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존재함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기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건드려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맞지 않게 인간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기에 구조와 방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적 진리이자 창조의 법인 ‘구조’를 세우셨고 그 안에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의 반응을 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음과 옳지 않음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인 저희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의미는 여러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 회복(restoration)적 의미의 구원은 기존에 존재했던 세계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타락하기 이전 창조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속(redemption)은 죄인을 해방시켜 자유를 허락하듯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반응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수정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을 하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완성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며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악이 없는 상태 (바다는 표현하지 않음)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질문(가령 코로나19)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발표한 내용은 제외)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설명해 보세요. (15점)**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교육”입니다.

적어도 제가 받아온 교육으로는 “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친다는 것 보다 지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가치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기에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되는 교육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지고 있어야할 가치관과 본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온 교육으로는 도저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저희 눈에 보이는 사회적 위치와 안목의 욕심들로 가득차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목적성 없고, 사회적 위치만을 신경쓰게 되며 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갈 기회조차 없는 한국의 교육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적 측면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세우게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는 교육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의 교육,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교육을 이제 받지 않고 사회에 나간 성인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를 갖고 있다면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데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듯 저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문화를 정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확신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교육이 세대에 걸쳐 이뤄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 과목이 기대했던 만큼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 강의를 통해 깊이 깨달은 점과 다음 학기에 개선했으면 하고 바라는 점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5점)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devotion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또 역사에 대해서 접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발표 수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가치관을 세우게 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깊이 깨달은 점은 아무리 시험과 과제에 무너지고 욕심이 생겨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에 감사했고 세상적으로 목표와 비전을 정하기 않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devotion과 발표 수업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내용을 후배들, 혹은 한동대의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답안지는 Word file로 TA(21700811@handong.edu)에게 메일로 보내기 바랍니다.